

오늘의 기사관

행사 (25일)
▲제 10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 시립장애인복지관
▲여수국가산단내 친환경 생태산단 구축을 위한 연속과제 및 2007년 신규과제 사업계획 평가=오후 1시 한화석유사택 영빈관 2층.
▲제 10회 전남도민의 날 및 제 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오후 4시 강진군 종합운동장. 22개 시·군 생활체육동호인 등 2만5천여명 참가 예정. 27일까지.
▲제 508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신동환 KBS 플러스 대표가 '지역 흥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
▲제 81회 21세기 담양포럼=오후 4시30분 담

제 10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북구 시립장애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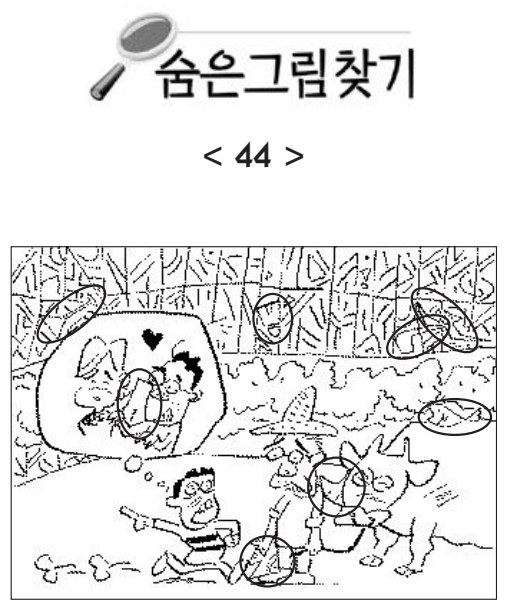
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조동춘(사)밝은가정협의회장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
<26일>
▲제 8회 정신장애인 한미음축제=오전 9시 광주시 구동 실내체육관. '나누는 사랑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5개구 만성정신장애인 1천200여명 참석 예정.
▲제 128회 강진다산강좌=오전 10시30분 강진군 문화회관. 방송인 김병조씨가 '명심보감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
▲제 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막식=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부대 행사로 오후 2시부터 한국케이비TV방송협회 주최 '디지털 미디어' 포럼과 '케이비 HD상영관'등 운영.
▲119 안전체험 대축제=오전 11시 순천 팔마체육관. 1만400여명 학생(5천명)·소방 관계자(2

'웃음은 만병통치약(웃음치료 행복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연.
▲간염 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25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제 37회 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25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제 29회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2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40회 정기연주회 '흥과 신명의 소리'=2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서울 색소폰 콰르텟 초청공연=26일(목) 오후 5시30분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
▲시화 공예전=31일까지 자미갤러리.
▲이치현 도예공방전=30일까지 무등갤러리 본관.
▲목도회전=31일까지 북구청갤러리.
▲사진으로 떠나는 가을여행전=31일까지 광주시 향토문화회관 3층 오월문학관.
▲손봉채전=11월 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뉴스퀴즈

35.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이 지난 22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이었던 이 전직 대통령은 3공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거쳐 1976년부터 4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10·26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같은 해 제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이듬해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외교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최규하 ②윤보선 ③이승만 ④박정희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나주 정답
담배피이프, 열대어, 펜촉, 서둘룩, 갈매기, 은행잎, 물고기, 양주잔



찾아보세요 잡자리, 팽이, 종이배, 서둘룩, 찻술, 바늘, 다리미, 고무, 열대어

◀사모님 사모님
초등학교 1학년 자연 시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 "강아지는 어떻게 짖나요?"
아이들: "멍멍멍"
선생님: "호랑이는 어떻게 울죠?"
아이들: "어흥"
선생님: "그럼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이때 카바레집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사모님 사모님"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하정·광주시 북구 두암동
정선영·여수시 학동

제15회 포스코 단체전 우승 총보(1~190)
포스코 단체전 우승 총보(1~190)
白 정장호 5단 <포스코>
黑 박명수 5단 <농협>
이 바둑을 정장호 5단이 승리함으로써 '포스코'는 3명의 선수가 11승을 거두는 막강한 화력으로 단체전 우승을 확정짓게 되었다. 첫 출전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포스코'는 그 전력으로 볼 때 이후에도 오랫동안 직장바둑계의 강자로 군림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단체전에서는 순위가 밀렸으나 이 판의 승자에게는 개인전 출전 티켓이 주어지는 관계로 박명수 5단에게도 매우 중요한 한판이었다. 이 바둑은 초반 중앙의 접전에서

바둑소식
이세돌 9단이 지난 23일 열린 제25기 바둑왕전 결승 3경기 1국서 최철한 9단을 180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 대회 우승까지 1승을 남겼다.
이세돌은 이로써 최철한에게 최근까지 당한 3연패로부터 벗어나면서 통산 전적에서도 11승 8패로 달아났다.
바둑왕전 결승 2국은 11월 20일 열린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 5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 초속기 기전.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한중일 3국 속기대항전인 TV바둑아시아선수권전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국내 메이저 타이틀 무대에서 이세돌은 물가정보배, 최철한은 GS칼텍스배 등 1개씩을 보유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이세돌 9단이 지난 23일 열린 제25기 바둑왕전 결승 3경기 1국서 최철한 9단을 180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 대회 우승까지 1승을 남겼다.
이세돌은 이로써 최철한에게 최근까지 당한 3연패로부터 벗어나면서 통산 전적에서도 11승 8패로 달아났다.
바둑왕전 결승 2국은 11월 20일 열린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 5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 초속기 기전.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한중일 3국 속기대항전인 TV바둑아시아선수권전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국내 메이저 타이틀 무대에서 이세돌은 물가정보배, 최철한은 GS칼텍스배 등 1개씩을 보유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5일(음 9월 4일 丁亥)
子 36년생 금전사기 대비가 있을 수 있다. 48년생 보이지 않는 모색을 한다. 60년생 의외의 협조가 있다. 72년생 애정의 관리가 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84년생 모든 일에 불리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07, 08
丑 37년생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다. 49년생 의심스런 굴욕을 지나는 형상이다. 61년생 부부의 냉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 73년생 불면이면 파동림을 당할 수도 있다. 85년생 이성의 만남을 꿈꾸어 보라. 행운의 숫자: 17, 18
寅 38년생 상당한 고역이 따를 수가 있다. 50년생 서투른 잘못과 뒷사람의 불만이 있으리라. 62년생 직업과 남편 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 수도 있다. 74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09, 16
卯 39년생 시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라. 51년생 안 밖으로 삭막하고 기력이 상실되니 건강에 유의하라. 63년생 순수에 항해하는 격이다. 75년생 새로운 일 생길 듯. 행운의 숫자: 20, 25
辰 40년생 한 쌍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으로 하루가 평안하다. 52년생 부부간 언쟁 큰 소리가 있으니 현명하게 생활해야. 64년생 주변의 도움이 있고 학문의 발전이 있다. 76년생 큰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14, 21
巳 41년생 생소한 길을 만난 듯하니 살피서 행동해야 한다. 53년생 일고 일락이 있거나 나쁘지는 않다. 65년생 무리하지만 잃으면 어부지리도 한다. 77년생 절대 새로운 일이나 금전거래는 신중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행운의 숫자: 22, 23
午 42년생 재미있게 놀다 그물에 걸릴 수도 있으니 조심이 최고다. 54년생 경쟁자가 없다고 할만 체는 하지마라. 66년생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잃지 말고 확실하게 잡으라. 78년생 자신 있게 활동하라. 행운의 숫자: 01, 02
未 43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경사가 생길 수 있다. 55년생 순종에 항해하는 형상이니 다음을 준비하라. 67년생 주변의 협조가 있다. 79년생 종래를 만난 일련접주이니 마음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11, 13
申 44년생 제도전의 꿈이 실현될 조짐이 보인다. 56년생 새로운 인연을 결국 허황된 상차만 남기니 주의하라. 6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후회는 없으리라. 80년생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정해진다. 행운의 숫자: 03, 12
酉 45년생 었더 눈물을 흘리고 주변이 산만하다. 57년생 의외의 특재와 영전 승진하는 격이나 이상문제는 신중하라. 69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화를 조심하라. 81년생 정신이 없는 하루니 각별한 신경을 써라. 행운의 숫자: 14, 11
戌 46년생 바깥엔 손을 놓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58년생 자신의 일로 그동안 쌓아놓은 정성이 무너질라. 7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고 도처에 은인이라. 8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니 건강을 챙겨보라. 행운의 숫자: 05, 10
亥 47년생 주변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생길 수도 있다. 59년생 말쑥하다 걸음마다 심심까지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71년생 시비가 뜨고 신체적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83년생 특별한 건강에 유념해야. 행운의 숫자: 16, 09

굿모닝 잉글리쉬 <760>
Like whom?
이를테면 누구지?
A: Kelly is the most talented student this year.
B: That's debatable since we have several other excellent students as good as Kelly.
A: Like whom?
B: Francine, Alvin, Louise...
A: Kelly가 올해 가장 재능 뛰어난 학생이야.
B: 그건 좀 얘기를 해봐야 돼, Kelly정도 뛰어난 다른 학생들을 만나본 후에 말아야.
A: 이를테면 누구지?
B: Francine, Alvin, Louise...
like : 이를테면, 같은(such as).
talented : 재능있는 유능한
as good as ~ : ~처럼, 마찬가지로
= as : like : sort of : similar to
excellent : 우수한, 아주 훌륭한(very good)
several : 몇몇의, 몇 사람의

오하이오 니혼고 <760>
いつも返事(へんじ)だけなんだから
항상 대답뿐이라니까
A: ちゃんと、整理(せいり)整頓(せいとん)しなさいよ!
B: はい。
A: いつも返事(へんじ)だけなんだから。やったら(やり)っ放(ばな)し、飲(の)んだら(飲み)っ放(ばな)しじゃだめよ。
B: はいはい、今度からは氣をつけます。
A: 확실히 정리정돈 해야지!
B: 네!
A: 항상 대답뿐이라니까. 하면 (하던) 채로 내버려두고, 마시면 (마시던) 채로 내버려두고)하면 안돼.
B: 네, 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 返事(へんじ) : 대답
• 氣をつける : 주의하다
• 整理(せいり)整頓(せいとん) : 정리정돈

니하오 풍구워 <478>
不讚
괜찮다, 좋다
A: 听说你搬进了新房子。
B: 是啊，还不错。
A: 那儿的空气怎么样?
B: 还不错。
A: 那里的环境怎么样?
B: 还不错。
A: 你喜欢那个地方吗?
B: 喜欢。
A: 你喜欢那个地方吗?
B: 喜欢。
A: 你喜欢那个地方吗?
B: 喜欢。

한자 이야기 <378>
風水說(풍수설)
바람 풍, 물 수, 말 씀 설
풍수설(風水說)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나 집, 묘 자리에 인간과 길흉과복(吉凶禍福)이 운명적으로 결려있다는 주장이다. 즉 세상의 생기(生氣)는 토지와 관련이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면 복(福)과 덕(德)을 누린다는 것이다.
'주역'에서 바람(風)과 물(水)이 어우러진 괘(卦)가 대과(大過)인데, 이를 보고 바람과 물이 인간문제와 깊이 관련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후한의 광박은 장경(葬經)에서 '죽는 것은 생기를 타는 것이다. 생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경계로 하면 머문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풍수(風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또 당나라 때 장양은 청조(青鳥)라는 책에서 무덤의 방위와 땅의 생기 모양을 보고 묘자리 잡는 방법 등을 설명하였는데, 궁궐이나 관아나 서민의 집을 지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8세기 후기에 풍수설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왕경(王京)의 건물과 주택 무덤에 적용되다가 차츰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풍수설을 널리 전하는데 노력한 사람으로는 도선(道善: 827~898)이 유명하다. 도선은 무엇보다도 땅과 인간사이의 상생(相生)과 조화(調和)를 강조하였으며, 뒷날 고려 왕건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